

'인도철학' 50년 학문업적 돌아보다

인도철학회, 동국대 인철과 개설 50년 맞아 학술세미나 열어

50년 전 근대불교학의 연구가 막 시작될 무렵, 그 원류인 인도철학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는 생소할 뿐이었다. 다양한 인도의 철학을 연구하는 이 분야는 동국대 불교대학의 '인도철학과'와 함께 그 뿌리를 내렸다. 1964년 설립된 동국대 인도철학과는 종래 한문문헌을 바탕으로 한 불교연구의 한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런 인도철학과 창립 50주년을 맞아 인도철학회(회장 정승석)가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1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는 '한국 인도철학 50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계 원로학자들과 신진학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승석 인도철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필 스님과 김진선 동국대 이사가 축사를 하며 정병조 금강대 총장이 기조발표를 담당한다.

이외 이호근 강원원주대 교수 및 주명철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사회로 △정호영 충북대 교수의 '불연(不然) 이기영 선생에 대한 회상' △문은식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월의법 교수의 업적과 불교논리학' △정승석 동국대 교수의 '배우며 생각하며 수행하며 전념한 후학 양생: 향운(香雲) 정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이기영·월의법 등 학자 사상 조명

태학 박사 △황용식 박사의 '서경수 교수의 업적과 현대 인도철학에의 한 전망' △이태승 위덕대 교수의 '일본 인도철학의 성립과 하라탄잔의 역할' 등 초기 인도철학을 개척한 학자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진다. 또 김성철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인도철학의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담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조명되는 원로학자들은 국내 인도



인도철학회는 한국불교계에 인도철학이란 새로운 분야를 여는 계기가 된 동국대 인도철학과 설립 50년을 맞아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철학계의 1세대들로 이기영 교수는 불교의 원의(原義)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인도 사상 전반에 접근했으며, 정태혁 교수는 요가·명상·밀교 등의 폭넓은 접근법을 통해 인도철학을 소개했다.고대 불교의 독자적 존재로서 활동했다.

이들의 노력이 이어 학술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인도철학회가 1988년에 창립됐다. 인도철학회는 교수 30명, 석·박사 과정의 전공자 60명, 인터넷 회원 42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1년에 두 번의 학술

발표회를 열고 있으며,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인도철학'도 발행중이다.

정승석 인도철학회장은 "동국대에 인도철학과가 신설된 지 50주년을 맞아 인도철학회는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향후 인도철학의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 자리에서는 50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선학들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는 동시에 후학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02)2260-3133 노덕현 기자

'깨달음' 수행의 목표인가? 과정인가?

밝은사람들연구소, 11월 29일 '깨달음' 학술연찬회

깨달음은 수행의 과정일까? 목표일까? 불교의 깨달음에 대한 불교사적인 재조명이 이뤄진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원(원장 윤희조)와 11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영장에서 제13회 학술연찬회를 연다.

이날 학술연찬회는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를 주제로 초기불교, 선불교, 불교학, 비교종교학, 상담심리학 관점에서 각각 조명한다.

기조강연은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부산 범어사 주지)이 맡는다. 수불 스님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 깨달음을 얻는 이심전심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분별없이 일어나는 생각들을 없애는 법 등을 설할 예정이다.

수불 스님은 조계종 대표 참선 수행처인 안국선원 선원장과 동국대 국제선센터 센터장을 맡아 간화선 대중화와 선수행 지도에 나서고 있다.

이외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붓다의 깨달음, 해탈 그리고 열반(초기 불교), 김호귀 동국대 교수의 '선종의 깨달음과 그 유형'(선불교), 박태원 울산대 교수의 '깨달음의 감과 깨달음 그리고 깨달아 마친'(불교학), 성해영 서울대 교수의 '깨달음 체험과 완성의 의미'(비교종교학), 윤호균 가톨릭대 교수의 '은마음 상담과 불교적 성찰'(상담심리학)이 발표된다.

특히 윤호균 교수는 한국 불교상담심리의 1세대로서 2000년대 들어 불교와 심리학의 만남을 시도해 온 이다. 윤 교수는 한국형 상담의 발달 이면에 불교의 연기론적 관점이 있음을 제시한다.

박찬욱 밝은사람들연구소 소장은 "불교 수행의 과정으로서의 깨달음과 궁극으로서의 깨달음의 시대별 의미를 살펴볼과 동시에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최근 연구자료 또한 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술연찬회 발표논문은 모야저 12월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운 주사)로 출간될 예정이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대산 사고본 일제 강탈 '재확인'

종결 스님, 입수한 석존사리탑찬양회 취지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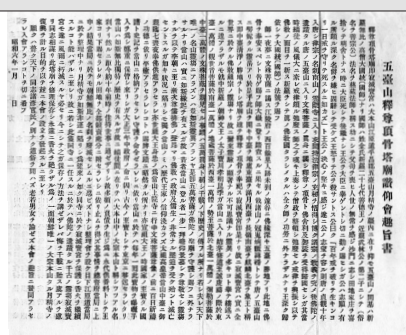
2006년 일본에서 환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월정사 사고본의 일제 침탈을 재확인하는 문서가 발견됐다.

군산 동국사 주지 종결 스님은 최근 경매를 통해 입수한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양회 취지서'와 '발기인 명단' 등을 본지에 공개했다.

취지서에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강탈 경위에 대해 '1914년, 정부(총독부)의 명(命)에 의해 동경으로 이송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의 상황은 <월정사 사적기>에도 그대로 기록돼 있다.

<월정사 사적기>에 의하면 '1914년 3월 3일, 총독부 소속 관원 및 평창군 서무주임 오케구치(桶口) 그리고 고을원조병선(趙秉璇) 등이 와서 본사(월정사)에 머무르며 사고와 선원보각에 있던 사책(史冊) 150 점을 강릉군 주문진으로 운반하여 동경제국대학으로 직행시켰다. 그때 간행리의 다섯 동인이 동원됐는데, 3일에 시작하여 11일에 역사(役事)를 끝냈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대해 종결 스님은 "조선총독부는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월정



오대산 석존정골사리탑묘찬양회 취지서

1914년 총독부 命으로 동경 이송
진신사리탑 정비 역사도 확인 의미
한암 스님부터 당시 유명 인사들
진신사리탑 정비 불사 나서 '눈길'

사의 인근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여 주문진 선착장까지 등짐과 담구지로 운반한 뒤 배로 실어 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대산 월정사 사고본 환수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해문 스님은 "환수 당시 발견

됐다면 일제 강탈의 주요한 증거가 됐을 것"이라며 "이를 재확인하는 면에서는 서지학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대산 월정사 변화 양상을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이 취지서의 큰 의미이다. 취지서에 따르면 '석존정골사리탑묘찬양회'는 5대 적멸보궁 중 하나인 오대산 월정사 중대(사자암)에 모셔진 진신사리탑을 정비하기 위해 1932년 1월 결성된 단체이다. 찬양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막대한 부채로 허덕이는 월정사를 구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찬양회취지서는 본 회의 취지(趣旨), 규약, 발기인, 찬성자 명단, 역원(役員, 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석전은 발기인에 '교정 박항영'으로 이름이 올라 있다. 발기인은 교정 방한암의 53인, 역원은 회장에 중추원부위원장 작박영효, 법주에 교정 방한암, 평의원에 응주사 주지 강대원 등 총 45인이다.

취지서 찬성자는 조선총독 작자 재등실(齋藤實)을 비롯하여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 육당 최남선, 중추원 참의 남작 박기양, 평남지사 원전관(園田寬) 등 138인으로 당시 최고 권력자에서부터 정·재계, 학계, 언론계, 불교계 등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했다. 신성민 기자

노덕현 기자

'전통 불복장 의식' 조명 첫 학술대회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사찰에서 비밀리에 행해져온 '전통 불복장 및 점안의식'을 조명하는 첫 학술행사가 열린다.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회장 무관)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정안)는 11월 27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최학 불교문화재연구소 미술연구팀장의 '전통 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의 선행' △이승혜 삼성미술관 리움 선임연구원의 '중국 불상의 성상 불안', △정은우 동아대 교수의 '우리나라 복장물의 형성과 특징' △남권희 경북대 교수의 '조상경' 판본의 서지적 연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미등 스님의 '불복장의식의 의미와 현대적 가치'가 발표된다. 이어 정은우 교수를 좌장으로 '불교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불복장 의식과 점안의식의 의미와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최초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다양한 시각으로 '대장경의 모든 것' 조명

티벳대장경역경원, '세계 대장경 역경' 학술대회 개최

전세계에 분포된 각국의 대장경을 역경하는 과정을 살피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티벳대장경역경원(원장 진옥)이 11월 28~29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백주년기념관에서 여는 학술대회가 그것이다.

'세계 각국의 대장경 역경'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의 특징은 세계 각국이 대장경을 번역하는 과정을 집중 조명하는 첫 국제학술대회라는 점이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티베트, 스리랑카 등 각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기조연설은 티베트 티베트학 중앙대학 총장 계세 나왕 삼덴 스님과 불교경전번역연구원장 정우 스님이 진행한다.

이어 △오가와 이치조 前일본 오타리대학의 '신국역대장경의 제문제' △텐베 도제 티베트학 중앙대학 교수의 '해외에서의 티베트대장경 역경 사례' △담마프렌즈 담마끼미 스님의 '스리랑카에서의 삼장 보존과 현대화 과정' △박종민 동국대역경원 역경위원의 '한국에서의 고려대장경 번역' 등이 발표된다. (054)770-2893

노덕현 기자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IJBTC' 23집 발간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가 최근 불교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23집을 펴냈다.

이번 호에는 △Buddhist and Confucian Attitudes toward Life: A Comparative Study(GuangXi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reefold Training of Buddhism and the Three Stages of Resurrection of the

Unification Church(JaeYoung Lee) △Dialogue between Buddhism and Won-Buddhism: With Special Reference to Won-Buddhisms Buddhist Reformation(YongSang Won)

'IJBTC'(편집위원장 김용표)는 2002년 7월 창립된 이후 매년 2회 발간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영문 불교학술지 세계 주요 대학 도서관 및 학술기관 150여 곳에 발송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